제6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2. 12. 20.(목) 14:3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이계철 위 원 장

김충식 부위원장

홍성규 상임위원

김대회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① 성원보고

② 국민의례

③ 개회선언

④ 회의공개여부 결정

○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함

⑤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 제66차 회의의 회의록 및 속기록, 제67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함

⑥ 의결사항

가.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 (2012-69-300)

-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고시 주요 내용

① 균형발전위원회 구성방식(안 제3조, 제4조)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11인의 균형발전위원을 위촉함

·11인은 △중소방송 추천자 3인, △중소방송 이외 지상파방송사 추천자 3인, △법조계·회계사·학계 각각 1인, △기타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함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인의 위원 중 1인을 균형발전위원장으로 임명함

② 균형발전위원회 직무(안 제5조)

-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 △결합판매 이행실적 평가, △방송광고 매출 배분 분쟁조정, △방송광고 균형발전 지원사업 성과 등을 심의함

③ 회의 운영기준(안 제7조)

- 균형발전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심의의결할 수 있음

- 균형발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④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안 제8조, 제9조)

- 균형발전위원회는 필요시 이해관계인,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 결합판매 이행실적 평가 등 필요시 방송사업자, 방송광고판매대행자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⑤ 분과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0~12조)

-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 위원은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내·외부의 전문가로 위촉함

○ 향후 일정

- 균형발전위원회 구성 : '13. 1~2월

나. 2012년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 춘천문화방송(주)
- (2012-69-301)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춘천문화방송(주)) 재허가 신청 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함

㉞ 보고서항

가. 「TV홈쇼핑의 중소기업 제품기준」 제정에 관한 사항

- 방송법 제9조제5항에 의거한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홈쇼핑사업자)'의 중소기업 제품 기준 제정안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
- 중소기업 제품 기준의 주요내용

- ① (제품 분류) 홈쇼핑사업자가 판매하는 제품을 '중소기업 제품'과 '기타 제품'으로 유형화
- ② (중소기업 제품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국내 비영리단체가 다음과 같이 제품을 생산한 경우로 한정

- ①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 제품
- ②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위탁 생산한 제품(대기업 ODM 제외)
- ③ 중소기업이 설립한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 ④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에 위탁생산(OEM)한 제품(ODM 제외)
- ⑤ 국내 비영리단체가 생산(제조)한 국내 농·수·축·임산물과 이의 단순 가공품(대기업 ODM 제외)

- ③ (원재료 수입의 인정범위) 중소기업이 원재료 등을 수입하여 일련의 가공활동(단순한 가공활동 제외)을 거친 경우 중소기업 생산 제품으로 인정
- ④ (결합제품의 분류) 기기와 서비스 등이 결합된 제품중에서 '렌탈서비스(정수기 등)'와 '통신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업체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제품여부를 판단

○ 향후일정

- 홈쇼핑사업자 통보 및 기준 설명회 : 12월중
- 「TV홈쇼핑의 중소기업 제품 기준」 시행 : '13. 1. 1.

나.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결과에 관한 사항

- 방송법 제35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개발한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 산출모형의 주요내용을 김준상 미디어다양성추진단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

o 주요내용

① 개요

-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방송법 제35조의4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의 개발을 완료

방송법 제35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

③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④제3항제2호의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발을 완료한다.

- TV·라디오·신문·인터넷 등 여러 매체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

·특정 사업자의 '매체 집중 정도'를 산정하여 방송의 여론 다양성 관련 정책 수립 시 계량적 근거를 제공

② 주요내용

- (지수 모형)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여러 매체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전체 영향력을 'TV 방송 시청점유율' 형태로 환산하여 평가

(이용점유율 X 매체간 가중치)의 합

- 이용점유율 : 매체영역내에서의 사업자별 영향력 산출값을 점유율 형태로 표시
- 매체간 가중치 : 텔레비전 방송 대비 다른 매체의 영향력 환산비율

- (매체간 가중치) TV 방송과 비교할 때,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 영향력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환산 비율

·매체이용의 양적(매체이용률)·질적(매체속성) 차이를 반영하여 산출

매체 이용률 X 매체속성 종합치

- 매체 이용률<양> : 지난 1주일 동안 해당 매체의 이용자 비율
- 매체속성 종합치<질> : 매체속성에 따른 매체별 이용정도 측정 결과를 합산평균한 값 (매체속성 변인 : ①시청각적 소구력, ②시사성, ③이용편의성 등 3가지로 선정)

※ 가중치 모의산출 결과(TV=1 기준) : 라디오 0.2~0.4, 일간신문 0.35~0.45, 인터넷 0.6~0.7

③ 지수 운용방안 관련

-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 매체영역별 영향력의 표시값(지표) 등은 추후 지수 산출 단계에서 자료 수집 가능성, 산출결과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채택여부를 결정

·(매체영역(안)) 매체 관련 법률상 허가·승인·등록·신고 대상 사업자 중 매체 별로 내용 전반에 대한 편성·편집권을 행사하는 사업자를 선정

·(영향력 지표(안)) ①텔레비전 : 방송채널별 시청점유율, ②라디오 : 방송채널별 청취점유율, ③일간신문 : (사)한국ABC협회의 신문제호별 유료부수점유율, ④ 인터넷 : 웹사이트별 총 이용시간점유율

④ 향후 활용방안 관련

- 우선, 고시 제정을 통해 지수 산출근거를 마련하여 시범산출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수를 적용한 규제도입이 필요한지 검토 후 미디어 환경을 고려한 규제방안을 마련

다. 2012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안)에 관한 사항

o 방송법 제35조의5에 따라 실시한 2012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

o 평가결과 주요내용

① 유료방송시장

(1) 유료방송시장

- '11년 유료방송시장의 경우 시장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HHI 지수 평균('10년 5,406→'11년 4,943)이 '10년에 비해 감소

·이용자 대응력이 높지는 않았으나, 해외 주요 국가와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용자 후생 저해가 우려될 정도의 시장지배력이 존재하다고 보기 어려움

(2) 디지털유료방송시장

- '11년 디지털유료방송시장의 경우 시장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HHI 지수 평균 ('10년 4,577→'11년 4,352)이 '10년에 비해 감소

·요금 국제비교를 통해 볼 때 이용자 후생 저해가 우려될 정도의 시장지배력이 존재하다고 보기 어려움

·단, 31개 권역에서 시장 집중도가 증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이 가운데 24개 권역에서 KT의 시장점유율이 증가)

(3) 결합판매의 시장영향

- 결합판매나 OTS는 유료방송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결합판매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

·통신사업자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이 결합상품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시장 점유율에 접근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위성방송과 IPTV의 결합인 OTS(올레 TV Skylife)의 가입자는 '09년 12월 85,799명에서 2012년 6월 1,424,490명으로 증가

② 방송채널 거래시장

(1) 지상파 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지상파 → SO 등)

- 지상파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은 공급·수요 모두 집중도가 높아 경쟁제한적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시청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음

·향후 종합편성채널 및 주요 유료방송채널의 경쟁력 향상 시, 지상파와 유료채널 간 수요대체성 증가와 시청자에 대한 영향력 변화 가능성이 있어 시장 모니터링 및 시장확정에 대한 검토 필요

(2) 유료방송채널 거래시장(PP → SO 등)

- 유료방송채널 거래시장의 공급측면 시장구조는 '10년에 비해서 개선되었으며 집중도 역시 통상적인 수준에서 과도하다고 할 수 없음

·방송상품 및 거래방식의 특성 상 통상적인 기준에서 높지 않은 시장집중도를 갖고도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유료방송채널의 주요 재원이 방송광고(60%)와 수신료 수익(22%)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규모 유료방송플랫폼이 가입자 접근권과 대응구매력을 이용, 유료 방송채널에 높은 수준의 이용자 대응력을 행사할 가능성 존재

③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외주제작사 → 지상파, PP)

- 시장구조는 '10년에 비해서 개선되었으나 수요 집중도는 여전히 높아 수요 측면의 경쟁제한성이 우려되는 시장

·반면, 경쟁력 있는 일부 외주제작사의 경우 수요자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협상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우려 존재

·비지상파 계열 PP의 외주제작 수요 증가에 따라 지상파 방송3사의 영향력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와 같이 가능성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해당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④ 방송광고시장

(1) 일반 방송광고시장

- 전체방송광고시장은 지상파 방송3사 계열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면서 HHI가 1,862까지 하락하는 등 집중도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지상파계열 등 주요 PP의 경쟁제한행위를 모니터링할 필요

(2) 프리미엄 방송광고시장

- '11년까지 지상파방송 3사간의 과점체제(HHI 3,398)가 KOBACO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MBC를 1위로 하는 시장점유율과 순위에도 큰 변화가 없었음

·'12년 민영미디어랩 도입 이후 방송광고시장 경쟁 양상 모니터링 필요

(3) 기타사항 - 미디어랩 도입

- '12년 상반기까지 미디어랩들은 기존의 지상파방송광고판매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 향후 경쟁도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광고요금/수수료를 중심으로 한 전략 변화와 그에 따른 시장구조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미디어랩이 지상파와 유료방송 광고를 함께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이중매체 간 결합상품의 등장과 그에 따른 변화추이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및 공중전화 적정대수에 관한 사항

- o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감면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과 공중전화 적정대수 산정결과를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

o 주요내용

① 고시 개정안

- (1)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료/월정액 감면 한도액을 2,000원 상향 조정(13,000원→15,000원)하여 정액형 가입자의 이동전화 요금감면액을 확대

- 고시 제4조제2항5호에 '이동전화 종량형 요금제와 정액형 요금제의 감면비율'에 기본료/월정액 2,000원 상향 내용을 반영

- (2) 공중전화 간접적 편익 차감 비율은 시내전화 간접적 편익(10%)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차감 비율 조정으로 발생하는 손실보전금은 공중전화 환경개선에 활용

- 고시 제9조3호에 '간접적 편익 차감비율' 조정 내용을 반영

- “부칙” 제3조에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는 '시내공중전화서비스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집행결과 및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반영

- ② 공중전화 적정대수는 '11년 대비 8,756대 감소(10.9%)한 71,519대('14년)로 하되, 공중전화 감축에 따른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하여 3년('12년~'14년)에 걸쳐 단계적

으로 적용

- 인구(시지역 3천명, 농촌지역 5백명), 장소특성(관공서, 군부대, 도서·산악지역 등)은 2008년 산정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 거리의 경우는 도로가 지속적으로 확장('08년 10,078만km → '11년 11,330만km) 되어 접근성이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시지역은 2km → 2.5km, 도농복합시·군 지역은 2km → 3km로 기준을 조정

○ 향후일정

-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 '12. 12. ~ '13. 1.
- 위원회 의결, 관보게재 : '13. 1.

8] 기 타

가.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2. 12. 24(월). 오후 2시30분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 (16:05)